

평화권모임 자료집 전쟁피해 모음 2003년. 출처 평화권모임 피스넷

4부 끝나지 않은 전쟁

전쟁으로 인한 재앙들

이라크 전쟁과 아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윤현주

“수백만의 아이들이 무력충돌 가운데 처해있다.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전쟁의) 목격자일 뿐 아니라 바로 표적물이 되곤 한다. 어떤 아이들은 민간인을 향한 폭격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의도적인 집단 살해의 희생자가 된다. 또 다른 아이들은 성폭력, 또는 기아, 질병 등 무력충돌로 인한 복합적인 박탈로 인해 고통당한다. 충격적이게도, 또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전투원으로 착취당하기도 한다.”

- Graca Machel

1. 전쟁과 아동의 인권

Graca Machel은 2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1996년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부터 10년 간 2백만 가량의 아이들이 무력충돌로 인해 죽었다. 그 3배 가까운 숫자가 전쟁으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었다. 그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끔찍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심지어 그 행위자가 되길 강요당하는 것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쟁은 생명권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 가족 및 공동체와 함께 할 권리, 건강권, 인격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 등.

아동병사

아동은 전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권을 침해당하는데,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경향은 아동들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Graca Machel의 24개 사례 연구를 보면, 징집당한 아동 중 대부분은 청소년기 소년들이지만, 청소년기 소녀들이나 10살 미만의 아동들을 징집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군인이 되는 경로를 보면, 강제로 징집당하거나, 거리나 심지어 학교 혹은 교아원에서 잡혀가곤 하였다. 또 다른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한편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할 수 있

는 방편으로서 무장집단에 참여하게 됐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병사들은 처음에는 지원 기능에서 시작하곤 하지만, 곧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 투입된다. 일부 아이들은 때로 자신의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해 잔악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이에 보고서는 각국이 18세 미만 아동들을 모집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유엔은 2000년 5월 18세 미만 아동병 모집 및 사용을 금하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가족과의 분리, 성폭력

또한 Graca의 보고서는 전쟁 중 피난 과정에서 아동들이 가족이나 친척 등과 떨어져, 돌봐 줄 사람 없이 위험 속에 놓이는 일도 잦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 시기에는 강간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별화된 여러 다양한 형태의 폭력도 난무하는데, 여아를 비롯한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뿐더러 때론 남자아이들도 강간과 성매매에 희생당하곤 한다. 이러한 성폭력들이 전쟁 시기에 더 증폭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가 붕괴해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계적으로 전쟁의 무기로서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Rome Statute)은 전쟁 시기 강간 및 성폭력 등을 반인도적 범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대인지뢰, 불발탄

전쟁 기간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인지뢰는 숨은 복병이다. 전세계적으로 1억1천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데다, 수백만 개의 불발탄들까지 분쟁 지역 곳곳에 널려 있다. 아동들은 이러한 위험에 특히 더 취약한데, 지뢰나 불발탄에 썩어져 있는 경고 표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아동들 특유의 호기심이 작용해 만져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폭발의 결과 역시 아동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아동들의 건강 문제

Graca는 칼, 총, 폭탄, 지뢰 등 무력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천명의 아이들이 죽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수백만의 아이들은 식량공급의 와해, 보건체계, 위생 시스템의 붕괴 등 전쟁의 간접적인 결과로 죽는다. 영양실조와 질병에 특히 취약한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이 아동들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아이들은 신체적 위험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상해로 인해 고통받기도 한다. 민간인들과 민간 시설들이 분쟁 과정에서 군사 표적이 될 때, 위험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유대는 파편화되고 붕괴된다. 이를테면, Graca가 인터뷰한 르완다 아이들 중 60% 이상이 자신들이 과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 전쟁 중 아동의 법적 보호¹⁾

1) 아래 내용은 국제적십자사 홈페이지의 www.icrc.org/eng/children의 내용을 많이 참조했음.

일반적 보호

아동은 국제적 무력 충돌 시 생명권, 신체적 처벌·고문·집단적 처벌과 보복의 금지 등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네바 제4협약(1949) 관련 조항 및 제네바협약 추가제1의정서(1977)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비국제적 충돌 시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특별 보호

제네바제4협약(1949)은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며, 추가제1의정서가 그러한 원칙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특별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비인간적인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아동에게 요구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추가제1의정서 77조) 이러한 원칙은 비국제적 충돌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추가제2의정서 4조 3항) 특별 보호에 해당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개(evacuation), 특별지역(special zone) :

-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아동, 환자, 노인, 임산부,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14조)
- 포위된 지역에서 아동 등 노약자를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17조)
- 충돌 당사국은 충돌이 지속되는 동안 중립국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거나 고아가 된 아동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24조 2항)
- 이주나 소개 시 점령군은 한 가족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제4협약 49조)
- 국제적 충돌 시, 안전, 건강 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아동을 외국으로 이주시키지 않는다. 아동을 이주시킬 때는 보호자와의 서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제4협약 추가제1의정서 78조)
- 비국제적 충돌 시 필요하다면, 아동의 부모 내지 아동의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의 동의를 가능한 한 얻어 아동을 임시로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국내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 (추가 제2의정서 4조 (e))

② 지원과 보호

- 아동, 임산부 혹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필수 식량, 의복 등을 실은 화물은 자유로이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제4협약 23조)
-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됐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된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생존, 종교 및 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돌 당사국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네바제4협약 24조 1항)
- 무력 충돌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특히 15세 미만 아동, 임산부,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어머니는 피난 온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최소한의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38조)

- 점령군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50조)

- (수용자에 대한 처우 중)임산부 및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및 15세 미만 아동은 그들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추가적인 식량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89조)

-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원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엔, 아동, 임산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제1의정서 70조)

- 아동은 특별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비인간적인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충돌의 당사국들은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추가제1의정서 77조)

-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참여하게 된 아동에게도,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는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제2의정서 4조 3항)

[3] 신원파악, 가족의 재결합과 동반자 없는 아동

- 충돌의 당사국들은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24조)

- 이주나 소개 시 점령군은 한 가족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49조)

- 고아가 되었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된 아동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의 책임이다.(제네바제4협약 50조)

- 의정서의 당사국 및 충돌의 당사자들은 무력충돌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추가제1의정서 74조)

- 일시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추가 제2의정서 4조)

[4] 교육, 문화적 환경

-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됐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된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생존, 종교 및 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돌 당사국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24조 1항)

- 점령군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점령군은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거나 가족과 헤어지게 된 아동의 생존과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동과 같은 국적, 언어, 종교를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50조)

- (수용자에 대한 처우 중)아동 및 젊은이들의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 시설 내든 밖이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아동 및 젊은이들이 신체적 운동, 스포츠, 야외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94조)

- 소개된 모든 아동들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제1의정서 78조)

- 아동들은 종교 및 윤리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제2의정서 4조)

[5] 체포, 구금 혹은 수용된 아동

- 18세 이하 아동에게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제네바 제4협약 51조)

- 한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는 같은 장소에 수용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82조)

- 수용자는 그들의 나이를 고려한 적절한 침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제네바제4협약 85조)
- 임신부 및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및 15세 미만 아동은 그들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추가적인 식량을 제공받아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89조)
- 아동 및 젊은이들의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 시설 안이든 밖이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아동 및 젊은이들이 신체적 운동, 스포츠, 야외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4협약 94조)
- 충돌의 당사자는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수용자들, 특히 아동, 임신부,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중립국으로 풀려나고, 송환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제네바 제4협약 132조)
- 아동이 무력충돌과 관련해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수용된다면, 그 아동 은 성인과 분리된 숙소에 있게 해야 한다. (추가 제1의정서 77조)
-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참여하게 된 아동에게도,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호는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 제2의정서 4조 3항)

[6] 사형의 면제

- 집행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보호 중인 사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선 안된다. (제네바 제4협약 50조)
- 무력충돌과 관련된 범죄가 행해질 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추가제정서 1 77조) 이와 같은 내용은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도 마찬가지다.(추가제2의정서 6조)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아동 (1977 추가의정서)

추가제2의정서는 15세 미만의 아동의 적대행위에의 모집과 참여를 모두 금지했다.(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제3협약에 의하면, 국제적 무력충돌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은 전투원으로 인정되며, 그들이 생포되었을 때 전쟁 포로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추가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는 15세 미만의 전투원에게 여전히 국제인도법이 아동에게 부여하는 특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아동권리조약(1989년)

아동권리조약 제38조는 무력충돌이 국제적이든 비국제적 성격이든 아동권리조약의 당사국은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4항) 또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2항),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3항)고 규정했다. 이는 추가제2의정서가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에의 모집과 참여를 모두 금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는 규범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년 5월에 채택된 이 선택의정서는 무력충돌 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우선, 당사국은 군대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택의정서는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의무 징집을 금하였다.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3. 이라크 아동들의 기본 상황

이라크의 인구는 대략 2천5백만명이다. 1천3백만명이 성인, 1천2백만명이 아동이며, 그 중 5세 미만의 아동만 4백만명이 넘는다. 1991년 이전까지 이라크는 유엔에 의해 소득이 중상 수준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근대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었고, 거의 모든 도시 거주자와 72%의 농촌인구에게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었다. 의료시설과 공중보건시스템도 발전돼 있었다.(유니세프, 1993) 1991년 걸프전 및 이후 이어진 경제제재는 이라크의 전반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이 장에서는 2003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이 있기 전, 아동들의 상태를 살펴 본다. 아래의 내용은 워 차일드 캐나다(War Child Canada)가 2003년 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책임 : 새로운 전쟁이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²⁾

영양 및 건강

석유-식량 계획 아래에서 과거 3년 간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적게나마 진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 미만 아동 중 최소 5십만명이 영양실조 혹은 저체중 상태에 있었다. 이라크 북부 지역 아동 중 11.4%, 중남부 지역 아동 23.1%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Save the children UK)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2.3배 증가했다. 아동이 사망하는 원인의 70%는 설사, 급성 호흡기 감염 질병이었다.(UNICEF, 2003a) 식수, 위생 및 보건시설의 열악한 상황과 영양실조가 아동의 질병발생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라크 정부 관료들과 의료기관에 따르면, 이라크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 소아암의 발병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1차 걸프전 당시 연합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파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

가계의 악화로 인해 국가 교육 수준도 악화됐다. 많은 아동들이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취학연령의 아동 중 최소 23%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 여아와 남아의 취학율은 서로 불균등했다. 남아의 83%, 여아의 70%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UNICEF MICS, 2000) 이는 여아의 거의 1/3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일을 돕는 책임이 여아에게 더 많이 지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들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터로 많이 내몰리고 있었다. 길에서 행상이나 구걸을 하는 아동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UNICEF, 2003a) 읽고 쓸 줄 아는 성인의 비율은 85년 89%에

2) 보고서 '우리 공동의 책임'은 이번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 이전 이라크 어린이들이 처한 상태를 건강, 식량권, 기반시설, 젠더 등 광범한 범주에 걸쳐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9명의 각계의 전문가가 기초 자료를 연구하고 2003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이라크의 바그다드, 칼바라, 마스라 등지를 현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 97년 57%로 급감했다.(UNDPa)

심리적 상태

‘우리 공동의 책임’ 보고서를 펴낸 국제연구팀은 2003년 1월 넷째 주 이라크 바그다드와 바스라의 21가구를 방문해 4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85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 조사를 했다.

“매 시간마다 뭔가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 하딜, 13세

몇몇을 제외하고 인터뷰에 응한 아동들 거의 대부분이 위의 진술처럼 매일 전쟁 위협을 생각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총과 폭탄을 갖고 있어요. 하늘은 차고, 뜨겁고, 우리는 아주 많이 타버릴거예요.”

- 아셀, 5세

“그들은 위에서, 공중에서 와서 우릴 죽이고 파괴할 거예요. 매일 낮에도 밤에도 무서워요.”

국제연구팀은 7세 이하의 아동 9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다섯 살의 아이들까지도 폭탄과 총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나름대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집이 부서지고, 불타고, 사람이 죽는 것 등.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또래의 아이들은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일정한 심리적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를테면, 언니가 머리에 담요를 덮어주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거나, 오빠가 방에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매일같이 우리 모두 죽을 거란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나 혼자 남는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 힌드, 13세

“대부분의 시간 한 가지 생각 밖에 안 해요. 전쟁은 나랑 우리 가족의 죽음을 뜻한다는 거죠.”

- 아이자르, 18세

“엄청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그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게 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 이스라, 16세

인터뷰에 응한 아동들 대부분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다. 몇몇 남자 아이들은 공포를 부인했는데, 그 중 14세의 아크메드는 “지금 당장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시험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는 강한, 일상적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고, 주로는 가족의 죽음이나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공포였다.

아동들의 진술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력한 희생자가 된다는 개인적 감정과 필연적으로 오게 될 전쟁

때문에 자신들의 삶과 미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드러났다.

국제연구팀은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이라크의 학교 두 곳에서 10세부터 16세에 이르는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아이들의 거의 40% 가량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17%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70% 이상 그들 가족에게 뭔가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을 나타냈는데, 동시에 아이들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태도도 드러냈다.

앞서 국제연구팀은 1991년 걸프전이 끝난 지 6개월, 1년, 2년이 지난 후 이라크의 어린이 93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아이들은 방공호 폭격으로 인해 400명 넘는 민간인이 죽었던 사건을 경험했던 아이들이었다.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슬픔과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다소 완화되긴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2차 걸프전(2003년)이 현재 아동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전쟁 중 폭격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제네바 제4협약 제1추가외정서의 77조는 “아동은 특별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비인간적인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충돌의 당사자들은 아동에게 요구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영 연합군의 공격은 민간인 여부나 아동인지 여부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것이었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아동의 숫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사례들로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을, 혹은 건강을 앗아갔고 아이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월 23일 국제평화팀이 찾아간 알리아모우크 병원에서도 연합군의 폭격으로 다친 아이들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용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카 세헤일은 여섯 살인 여자어린이였다. 자카는 등을 다쳐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전신 마비에 이르렀다. 열살 난 루슬 살림 압바스는 수 시간 동안 폭격이 퍼붓던 날 문을 닫으러 갔다가 가슴과 오른 손에 파편이 박히고 말았다.³⁾

3월 24일 바그다드의 노만 병원. 14살 난 소년 알리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 사히드는 손에 말라붙은 피를 묻힌 채 가만히 누워있었다. 남동생 아메드의 얼굴은 여전히 피투성이인 채 마찬가지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우리는 신을 믿어요.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안전하게 살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라고 아메드는 말했다. 의사, 압둘라 아베드 알리는 아메드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죽은 걸 몰라요.”라고 속삭였다.⁴⁾

3월 24일 바그다드의 알 킨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13세의 중학생인 니다 아드난은 오른쪽 두 개 골

3) <http://eletroniciraq.net/news/426.shtml>

4) 워싱턴 포스트 2003년 3월 25일자. Missile Strike Shatters a House, and a Family

이 깨져서 틈이 벌어지고, 왼쪽 허벅지도 유탄에 베이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마취 진통제가 없어서 다리의 상처를 가제로 누르자 나다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5)

3월 29일부터 며칠간 집속탄으로 보이는 폭탄이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듯 사정없이 쏟아졌던 바빌론, 그곳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쳤다. 그 인명 피해 상황은 서방 기자들이 보기에 너무 끔찍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아기의 몸이 절반으로 동강났는가 하면, 절단 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 등이 그것이다. 또한 수의로 싸여져 마치 인형과 같은 아기의 작은 시체가 병원에서 실려 나갔고, 10살 가량 보이는 소년의 시체가 길에 놓여 있었다. 알리아 무타프는 이번 연합군의 공격으로 남편과 여섯 아이들이 죽었다. 힐라 병원에는 통곡하는 아이들과 다친 사람들로 그득했다. 마제드 드제릴은 부인과 두 아이를 잃었다. 유일하게 생존한 그의 셋째 아이는 발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있다. 다섯 살 난 카만 압베스는 다리에 폭탄을 맞았고, 마리암(10세)은 소형폭탄이 박힌 오른 쪽 눈에 형검을 덧대고 있다. 위와 허벅지에도 상처를 입었다. 마리암의 어린 여동생 호다(5세)는 오른쪽 귀 바로 위 머리에 깊은 구멍이 나서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6)

아이샤 아메드(8세)의 비명 소리가 병원 응급실을 채운다. 아이샤가 사는 바그다드 공항 인근 외딴 지역인 라드와니예에는 4월 2일 아침 연합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다. 당시, 아이샤는 사촌과 이웃들과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샤의 이웃은 “비행기 소리에 이어 큰 폭발음을 들었다. 농장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파편 조각들 속에서 겨우 사람들을 끌어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아이샤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얼굴과 몸은 유탄 폭풍에 의해 생긴 듯한 상처로 어지럽다. “엄마! 엄마 어딨어요?” 아이샤는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지만 간호사도, 그의 이웃들도 감히 뭐라 답을 하지 못했다. 4살밖에 안 된 어린 남동생 모하메드는 죽었고, 엄마와 또 다른 남자형제는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입어 수술 중으로 상태가 위험했다. 아빠와 두 자매는 모두 심하게 다쳐 다른 병원에 있었다.

혈청투브를 몸에 꽂은 채 침상에 누워있는 모하메드 카셈(7세)은 위에 파편이 박혀 있었다. 바그다드 서쪽 집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폭발 소리만 들으면 몸을 떨어서, 나는 아이에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을 해줘야 해요.” “콩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꼭 잡아요. 공습이 끝날 때까지 애를 안아 주고 도닥여줘야 해요.” 모하메드 카셈의 엄마 마디하 모센 알리(40세)는 말했다. “자지도, 먹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엄마 언제 이런 소리가 끝나?’냐고 물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끝없이 울고, 폭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떨고, 잘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다는 것이다.7)

바그다드에 사는 알리 압바스(12세)는 4월 6일 연합군의 공습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데다, 중화상으로 인해 두 팔까지 잘라야만 했다. 압바스의 시련은 이 파괴적인 전쟁에서 이라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참상의 한 단면이다. 그나마 서방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된 압바스는 쿠웨이트로 더 나은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지만, 다른 수천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의약품과 의료진이 부족한 이라크의 병원에서 죽어

5) www.iraqpeaceteam.org 에이프릴 힐리의 3월 24일자 일기, 인터넷 신문 지오리 포트(www.georeport.net)에도 실려 있음.

6) 2003년 4월 2일, Children Killed and Maimed in Cluster Bomb Attack on Town, Robert Fisk, the Independent
2003년 4월 2일, Children Killed in US assault, Suzanne Goldenberg, The Guardian
2003년 4월 3일, Wailing Children, The Wounded The Dead; Victims of the Day Cluster Bombs Rained On Babylon, Robert Fisk; The Independent. Znet에도 실려 있음. (www.ccmep.org에서 검색 가능)

7) 2003년 4월 3일, In Iraqi Hospitals, Child War Casualties Mount, Samia Nakhoul, Reuters

나, 어렵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5. 전쟁 이후 불발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아이들의 희생은 계속된다. 동그렇게 생긴 물체에 호기심이 생겨 만지거나 갖고 놀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이상한 물체는 바로 불발 집속탄이다. 미군에 의해 사용된 집속탄은 일단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200여개의 자폭탄이 산개하면서 각각 수백 개의 쇳조각을 분출한다. 자폭탄의 5~15%는 폭발되지 않고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대인지뢰처럼 남아있게 된다. 코소보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충돌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이러한 불발 집속탄을 장난감이나 과자 봉지인 줄 알고 건드리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이라크에서도 불발 집속탄 및 기타 폭발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가 계속 나타났다.

카드히미야 병원에 누워있는 알리 무스타파(5세)는 형과 두 친구들과 둥근 이상한 물건을 집어 들고 놀다가 다리에 파편이 깊게 박히는데 시력까지 잃게 되었다. 자녀가 둘이나 다치게 된 알리의 아버지 갈렘 무스타파는 이같은 비극은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한다.⁸⁾

하난 유스피(11세)에게도 전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하난은 4월 15일 양을 치다가 들판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막대기로 찢어 본 순간 왼쪽 발을 잃고 말았다. 알리 마디 카툼(12세)은 4월 19일에 길에서 발견한 폭탄이 순식간에 터져 왼쪽 어깨와 팔이 찢어졌다. 두 친구와 사촌은 그 일로 죽고 말았지만, 아직 알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모하메드 사바(13세)는 4월 18일 길에서 폭탄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모하메드의 오른손을 앗아갔다.⁹⁾

나시리아의 빈민 지역에 사는 할라 하산(5세)과 동생 알리(2세)가 평소에 가지고 놀만한 것이라고는 쓰레기 더미 속 플라스틱 폐품들이다. 두 아이가 어딘가에서 발견해 일종의 공이라고 생각한 갈색 원통은 사실 불발 집속탄이었다. 그것은 앞마당에서 터져, 할라와 알리는 각각 다리와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었다. 바로 전날에도 이 지역에서 7살과 14살인 아이들 셋이 불발 집속탄으로 인해 죽었다.¹⁰⁾

바스라의 거리에서도 아이들이 전쟁이 남긴 폭발물들을 가지고 축구를 하며 노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4월 27일에는 3명의 아이들이 박격포탄을 갖고 놀다 죽었다. 이런 와중에도 12살의 하산은 수백개의 박격포탄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죽는 거 도와줄게요!”¹¹⁾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의 병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종전 이후 한 주 동안 대인지뢰나 불발탄 때문에 키르쿠크 한 지역에서만 52명이 죽고, 63명이 다쳤고, 사상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다.¹²⁾

8) 2003년 4월 18일, Bombs Silent, But The Children Still Suffer, Jonathan Steele, The Guardian, Znet에도 실려 있음.

9) 2003년 4월 24일, 아랍뉴스(www.arabnews.com), For Thousand of Faceless Victims, War Still Continues, Phil Reeves, The Independent

10) 2003년 4월 19일, Children Main Victims of Cluster Bombs, A family from al-Nasiriyah find out first hand of a news danger, Richard Lloyd Parry, the Times. www.ccnep.org에도 실려 있음.

11) ICRC, 2003.5.1 Iraq: A dangerous game with explosive remnants of war

12) 2003년 4월 21일, Dozens of Children Killed by mines and unexploded bombs every day in Iraq, Mines Advisory Group. http://electroniciraq.net에 실려 있음.

그 후 많은 불발탄들을 제거해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현격히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부터 5월 20일까지 평균 하루 25명 가량이 불발탄 때문에 다쳤다.¹³⁾

6. 전후 위생, 의료 및 교육 상황과 아동

위생 및 영양

계속되는 더위와 고갈되어 가는 상수도정화약품(염소가스)으로 인해, 전후 이라크의 식수 문제는 무척 심각한 상태였다. 아주 적은 양의 하수만이 정화 처리됐고, 대부분의 하수는 그대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유니세프의 케를 벨라미는 이 정화되지 않은 물은 인체에 유해한 독소와 유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염소가스가 떨어지면 정화되지 않은 수돗물은 마치 늪지에서 바로 끌어올린 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나시리야, 바스라, 주발(Zubair), 샤프완 등의 이라크 일부 도시들은 하수오염이 정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이라크 전역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보고됐고, 어린아이들의 설사병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면역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어린이들과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피해는 치안/안보 문제와 함께 전후 최고의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면역체계가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콜레라나 설사병 등에 대처할 방어력이 약하다. 5월 13일까지 바스라에서 확인된 5세 미만의 콜레라 환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¹⁴⁾

전후 초기 바그다드 외곽 극빈촌의 알 노르(Al-Noor) 병원에는 3시간만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설사병 어린이 환자가 3백명 정도 접수된 적이 있다. 설사병이 걸리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부족하게나마 공급되던 최소의 영양분마저도 몸 안에 흡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식료품 공급이 정상화되지 못해 아이들은 계속해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아이들 중 1/4이상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이는 이라크 어린이 약 1만 명에 달하는 숫자이다.¹⁵⁾ 더욱이 급성영양실조의 경우 전쟁을 거치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유니세프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로 집계됐던 급성영양실조 상태인 5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이 7.7%로 증가했다.¹⁶⁾

의료

수인성 질병 및 불발탄의 폭발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의 수가 무척 많으나, 병원 기자재 및 의료품 부족, 전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쟁 직후 이라크의 병원 시설은 거의 마비 상태여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전과 치안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아이들의 병원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다. 불안정한 치안 상황 때문에 아이들은 그나마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치료를 받을 수도 없으

13) 2003년 5월 20일, Unexploded ordnance injure 350 in Kirkuk, IRIN, <http://eletroniciraq.net>

14) UNICEF Crisis Appeal for Iraq's Children, Action Update, 5-17 May 2003

15) What UNICEF said at the UN briefing (2003. 4. 27)

16) UNICEF Crisis Appeal for Iraq's Children, Action Update, 5-17 May 2003

며, 심각히 탈수되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까지 정말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집에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교육

학교는 교육적 기능뿐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센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계속된 3개의 전쟁들, 12년 간의 경제제재, 부패한 정권 등으로 인해 현재의 이라크 공교육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한때 주변 아랍국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이라크의 공교육 체계는 전쟁의 폐허와 함께 재건해야 할 제1의 숙제다.

수 차례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에 있는 6-7천여 개 학교는 창문, 학교 집기류 등이 파손되었다.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 학교들은 폭격을 당해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학교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곤 했다. 책걸상, 책, 수업기자재 등이 약탈됐고 건물은 파괴되었다. 일부 학교들은 미·영 연합군에 의해 점령돼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다. 약탈된 집기류는 제외하고서라도, 학교의 전기 시설, 화장실 등 기본시설조차 심하게 파손되어 이라크의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생활터전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도처에 널려있는 무기 및 전염병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거리의 아이들이 늘어,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및 착취의 문제도 이라크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5월 말에 이르러, 이라크 남부의 학교 80%, 북부의 학교 100%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6월 현재 아동의 학교 출석율은 65%로, 여전히 전쟁 이전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다.¹⁷⁾

위험에 빠진 이라크의 공중위생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상황 개요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은 1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여

17) UNICEF Crisis Appeal for Iraq's Children, Action Update, 1-15 June 2003

기서 더욱 눈여겨 봐야할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의 대부분이 폭격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걸프전에서 연합군은 이라크의 전력시설, 정수 및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파괴했는데, 이로 인해 각종 수인성 질병이 발발하고 공중위생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걸프전이 끝난 그 해 8월, 유엔이 실시한 첫 번째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수도체계붕괴로 인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수인성질병에 취약한 어린이 4만 7천명이 불과 몇 개 월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할 수 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렇듯 물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공중위생 또한 허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 중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국제법들이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safe water)’를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주택,교육뿐만이 아니라 ‘물’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인 것이다.

예컨대, 제네바협약은 “수도체계와 같이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대상들을 공격하여 파괴하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으로부터 유래한 국제인도주의법 또한 “군사목표물과 민간목표물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군사목표물에 한정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규정인 로마규정 또한 이와 동일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전기시설이나 수자원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든, 여하한 군사조치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에 의한 것이든, 민간인이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박탈하는 행위는 명백히 전쟁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의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이라크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조건인 공중위생체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력시설 파괴

그렇다면, 2003년 3월 20일 이후 이라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선 미-영 연합군의 공급과정에서 이라크 곳곳의 여러 전력시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시설의 파괴는 이라크의 공중위생과 관련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력공급이 중단되거나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물을 정수하는 정수처리시설,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 하수를 정화하는 하수관선시설등 모든 상하수도관련체계가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남부도시 바스라는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한 첫 번째 도시이다. 3월 21일

벌어졌던 미-영 연합군의 공습은 바스라의 고압선을 파괴했으며, 이에 따라 바스라 전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전력공급중단은 곧바로 바스라 주민들을 '물 부족'에 허덕이게 하였다. 전력공급 중단에 따라 와파 알 카에드 급수장같은 바스라의 주요한 상수도처리체계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와파 알 카에드 급수장은 샤프트 알-아랍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다섯 곳의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하던 급수장으로서, 바스라 주민의 60%인 90만명이 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던 중요한 급수장이었다.¹⁸⁾ 공습이후 파괴된 급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들이 나섰으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못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여러 복구노력이 있었음에도 4월 말 현재, 바스라에 대한 수도 및 전력공급은 공습발발 이전수준의 60%를 밑도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¹⁹⁾. 뿐만 아니라 바스라에서 '물부족' 현상이 근 한 달을 끌게 되자, 급수차를 동원해 구호품으로 나누어주는 식수가 암시장에서 1.5리터 들이 한병에 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이 식수를 "적십자표 생수"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⁰⁾. 바스라 인근 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유니세프의 4월 2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시리아의 수도처리시설또한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인해 하루 6시간 밖에는 가동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알주바이나 샤프완 같은 바스라 북부의 도시들 또한 공습이 시작된 후 일주일 쯤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다²¹⁾

한편, 미군의 공격이 이라크 남부에서 바그다드로 점차 향하게 되면서, 전력 및 식수대란은 이라크 중부 및 북부로 확산되었다. 4월 3일엔 바그다드 전역에 공급되던 전력의 90%가 공급 중단되었다. 미군이 사담 국제공항을 점령하는 와중에서 인근에 위치한 알 두라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담 국제공항 점령이후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는데, 중단된 전력공급은 그때까지도 재개되지 못했다고 한다²²⁾. 국제적십자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력공급중단에 따라 바그다드에 위치한 주요 정수처리시설의 가동률 또한 40~50%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점령이후 점령군의 방조 속에 약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그다드 수자원관리당국이 보관하고 있던 수도 시설 관련 부품과 장비등 또한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수도망 파괴와 "봉쇄"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된 '식수대란'은 상수도 연결망이 파괴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 전역에 뻗어 있는 수도관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자, 그나마 공급되던 식수마저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의 5월 2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수도관 연결망이 거의 40%가까이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바그다드로 공급되는 물의 50%가 유실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전쟁 때문이다. 물론 전쟁이전에도 12년에 걸친 경제체제 때문에 이라크의 수도관 체계는 무척 노후한 상태였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공습이 진행됨에 따라 땅속에 묻혀있던

18) *Special Report : Water under siege in iraq*, the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2003년 5월.
<http://www.cesr.org/iraq/docs/waterundersiege.pdf>

19) ICRC Iraq Bulletin 2003.4.20 "Iraq is at a crucial stage"

20) *Iraq : Basra's pivotal issue? water*, UN IRIN 2003. 4.13

21) ICRC Iraq Bulletin 2003. 4. 2

22) ICRC Iraq Bulletin 2003. 4. 12

수도관이 쉽게 파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지상전투과정에서 탱크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무제의 물체가 지표면을 흔들게 되자, 부식된 수도관 라인이 여지없이 파열되어 버린 것이다²³⁾.

한편, 전쟁초기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조기함락하기 위해 벌였던 속전속결전략 또한 이라크의 '식수 대란'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남부와 중부의 주요도시들을 봉쇄한 후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군사작전을 벌인바 있는데, 이렇게 도시들이 "봉쇄"되게 되자, 전력 및 수도관련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의 긴급지원 또한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4월 29일 AP뉴스는 염소와 같은 정수처리에 필요한 약품 또한 반입이 어려워져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급수 및 정수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미-영 연합군의 공격은 의료시설에까지 이어졌다.

4월 2일, 미군 공격기들은 바그다드에 소재한 적신월 산부인과 병원 맞은편의 빌딩을 군사목표물이라는 이유로 폭격했는데, 강력한 폭발로 인해 적신월 병원의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여러 명의 환자들이 부상당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3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²⁴⁾. 이라크 평화팀의 증언에 따르면, 3월 26일 진행된 공습과정에서 시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도시인 루트바의 한 병원도 폭격당했다고 한다. 이라크 평화팀은 "이 병원 과 도시 어느 곳에도 이라크 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영 연합군이 폭격을 가했다"며 비난하기도 하였다²⁵⁾. 한편, 유니세프는 4월 20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나시리아에 소재한 보건소와 의약품보관소가 미-영 연합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와 의약품 보관소는 영양실조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줄 고단백 비스킷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이 6개월치나 저장되어 있었다고 알려진 곳이다²⁶⁾.

전력 및 수도체계의 기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료시설 또한 공격받는 상황에선 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라크의 열악한 병원사정에 대해서 4월 12일자 국제적십자사 보고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병원(바그다드 야모크 병원)에는 한 시간당 100명꼴로 환자가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야모크 병원은 이들에게 단지 응급조치만을 수행해주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미-영 연합군이 발사한 로켓이 이 병원 건물 3층을 타격하면서, 병원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격으로 인해 병원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3대의 긴급 발전기중 2대가 고장났으며, 현재 병원 입구에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가득차 있는 상황이다."²⁷⁾

23) Unicef, "Cleaning up neglected, damaged water system, cleaning away garbage links" 2003. 5. 27

24) IFRC "Red Crescent maternity hospital damaged in attack" 2003. 4. 3

25) "American Peace Activists Confirm Iraqi Hospital Bombed", AP 2003. 3. 31

26) UNICEF Iraq briefing note 2003. 4. 20

27) Baghdad Yarmouk hospital: one hundred patients an hour, ICRC, 2003. 4. 6
<http://electroniciraq.net/news/569.shtml>

공중위생의 붕괴와 재앙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이 다만 군사적인 목표에 한정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침공을 정당화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민중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사회시설들을 직접적으로 파괴했을뿐만 아니라, 도시 “봉쇄”와 같은 전략을 통해 외부의 지원또한 차단하였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공습이 가져온 전력공급난과 수도체계의 악화로 인해 평범한 이라크 사람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되기 전 국제기구들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공습에 따라 이라크의 수도체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이라크 어린이 상당수가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는 듯 하다. 콜레라, 이질,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깨끗한 식수부족으로 인해 작년에는 하루 1명꼴이었던 수인성 질병 환자수가 올해 4월에는 하루 6명 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설사같은 수인성 질병은 기초적인 보건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대수롭지 않는 질병이지만, 이라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수년간의 경제체제로 인해 탈수증과 영양실조를 보이고 있는 이라크 아동들에게 설사는 생사를 다투야 하는 심각한 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의료환경과 적절한 약품이 구비되고 있지 못한 조건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²⁸⁾.

게다가 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이라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환경의 위생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주째 쓰레기조차 치우지 못해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있어, 대부분의 이라크 사람들이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환경 속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리되지 못한 오폐수가 티그리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 같은 이라크의 주요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자 이라크 아이들이 오염된 하천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²⁹⁾. 결국에는 이런 여러 환경적 요인들 또한 상호작용하면서 이라크내에서의 질병발생율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28) UNICEF Warns on Water in Southern Iraq, AP Apr 29, 2003

29) UN IRIN Report 5월 6일자

바스라를 괴롭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 물부족

“여보세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이라크 남부의 주요도시 바스라. 이 도시의 어느 거리를 걷게 되든, 당신은 이라크 사람들이 이처럼 이구동성으로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 150만명의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스라에서, 이라크 사람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 한달이 넘도록 발버둥이치고 있다. 전쟁과 약탈로 인해 정수시설과 급수시설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곳의 기후는 점점 더워지고 있으며, 30℃를 넘나드는 온도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격양되고 있다. “우리 집엔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고,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스라에 살고 있는 사미 이드리스씨의 말이다. 그는 비상용 급수차가 바스라 남쪽의 움콰스르와 샤프완에는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바스라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

바스라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부서진 수도관앞에, 오염된 수로 곳곳에, 그리고 인근 샤프 알-아랍 강 유역에서 많은 이라크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물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곤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전쟁이 끝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믿던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아스러운 문제 수 밖에 없다. 바스라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브 알 살람씨는 “깨끗한 물은 하나도 없어요. 왜 더러운 물밖에 없는 것이지요?”라고 개탄하며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나마 돈을 주고 물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거든요”

구호기관들이 이라크 남부에 공급해주고 있던 깨끗한 물은 이미 암시장에서 사고 팔리고 있다. 돈이 부족한 이라크 사람들은 구호기관이 배급한 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정작 그들 자신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거리 차판을 하고 있는 아마드 자비르씨는 움콰스르와 샤프완에서 가져온 식수를 바스라에서 팔고 있다. 요즘 그는 1.5리터 식수 하나를 1달러에 팔고 있다고 한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라크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사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드씨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 장차 시장에서 거래할 물을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마드씨는 구호용으로 배급된 물을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바스라에 살고 있는 후세인 알리 타이씨는 “적십자 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적십자 물”은 그의 한 살짜리 아들 알리의 몫이다. 정작 그 자신은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바스라 중앙 수도처리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온

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그들은 바스라 인근의 샤프트 알-아랍강의 물을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시리아 인근의 주요한 급수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샤프트 알-아랍에서 끌어올린 물은 흑갈색이 나는 더러운 물이지만, 한번 정수처리를 하고 나면 그런대로 빨래용으로는 쓸 수 있다. 하지만, 식수용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되려면, 아마도 한참의 시간이 걸릴 듯 싶다.

정수처리장의 운영자인 살리 카티르씨는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이런 상황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정수처리장이 언제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다시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살리씨는 이라크의 낙후된 수도체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수도관마저 파괴된 곳이 많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한다.

한편, 유니세프는 급수차를 동원해 쿠웨이트로부터 식수를 실어나르고 있는 중이다. 스틱 벨씨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에 쿠웨이트르 출발한 급수차 10여대가 오는 4월 20일 경이면 바스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벨씨는 바스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유니세프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스라시의 어떤 지역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선적으로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 글은 UN IRIN 4월 19일자 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3주가 지났지만, 물은 여전히 없다.”

전염병을 우려하고 있는 바스라의 의사들

이라크의 남부도시 바스라 주민들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3주 동안이나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을 지 모른다고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전 첫주만 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중단된 수도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았었다. 그러나 수도공급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실패로 돌아갔고, 구호기관들의 도움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적십자사의 타마라 알-리파이씨는 바스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과 혼란으로 인해, 구호요원들이 바스라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이런 이유로 구호작업을 미루게 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스라 중앙병원의 외과의사인 우다이 압둘 바크리씨는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설사로 고생하고 있으며, 콜레라나 이질 같은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라크 남부도시들은 현재 깨끗한 식수가 부족함에 따라 이같은 수인성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압둘 바크리씨는 “조만간 이런 질병들이 대규모로 유행할지도 모른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깨끗한 물과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자, 바스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영국군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또한 약탈과 혼돈을 제어하고 있지 않는 영국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바스라 중심부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부시와 블레어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과 전기를 앗아가버렸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악사드 토브라니드(엔지니어, 50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입니다. 우리는 마실 물도 없어요. 영국군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영국군은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라고 답할 뿐입니다. 분명 국제법에는 점령군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후략...

이 글은 The Guardian지 4월 14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위험에 빠진 바그다드의 공중보건

무하마드 카심이 설사에 걸려 병원에 온지 오늘로 꼭 10일이 지났다. 침대 위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작은 소년은 정맥주사에 의존하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정기적인 혈장주입과 항생제투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소년에 대한 그의 부모와 의사들의 관심은 각별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하마드는 병세는 악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가져온 열악한 보건위생상황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운명에 처해있다. 무하마드 옆에서는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알 리가 과녁판에 다트를 던지고 있다.

이 쌍둥이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 7개월만에 나온 조산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고작 2킬로그램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에도 이 아이들의 몸무게는 불과 3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3킬로그램은 신생아들의 평균체중이다. 전쟁이 터지고, 이 아이들의 부모가 바그다드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는 먹을 만한 식수가 없었다. 결국 이 쌍둥이 아이들은 몇 주동안 설사로 고생할 수 밖에 없었고, 다행히 알리는 이제 좀 나아졌지만, 무하마드는 치명적인 수준으로 몸이 약해진 것이다. 아버지 카심 압바스는 아이들이 혹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후세인 페이달 알 자와디씨는 바그다드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오랜 기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이 같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심각한 건 다만 설사뿐이 아니다. 알 자와디씨는 얼마 안 있어 치명적인 콜레라가 창궐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깨끗한 물도 없어요. 수돗물도 냄새가 나고 유리잔에 부어서 가만히 보게되면 그 안에 이 물질도 보입니다” 알 자와디씨는 이미 1999년에 이라크에 콜레라가 창궐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더욱 사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알 알위야 병원 병동에서는, 울부짖은 어린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부모들을 셀 수 없이 만날 수 있다. 병원이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들은 병원 복도와 안마당을 꽉 채우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 또한 하수처리, 쓰레기청소, 깨끗한 물, 전력공급 같은 기본적인 공공성이 붕괴함에 따라 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알 자와디씨는 “그럼에도 우리를 돕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말을 잇는다.

바그다드의 유니세프가 그나마 이 들을 도우려고 하는 기관중의 하나일 것이다. 조지 하팀씨는 “때대로, 바그다드가 아이들을 파괴하는 박테리아의 거대한 공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한다. 바그다드가 온통 오염된 물과 널부러진 쓰레기들, 넘쳐흐르는 하수로 가득차 있으며, 전기와 가스 또한 항상 부족하고 이 때문에 물을 제때에 끓여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끓이지 못한 물을 먹다보니 병과 죽음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이다. 하팀씨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필요한 모든 지역에 대해 구호작업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설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중위생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하팀씨는 병동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몇몇 병원들의 예를 상기시켜주었다. 병동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플라스틱 가방에 담은 방법으로 쓰레기처리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 결과 병원의 위생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는 쓰레기더미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더위날씨 때문에 악취를 내면서 썩곤 한다. 위생상의 이유로 주민들이 소각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 종종 검게 그을려 있는 쓰레기 더미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차차 쓰레기 청소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유니세프가 위생상황이 심각한 지역 세 군데를 골라 트럭을 동원해 쓰레기더미를 치우기 시작한 것이다. 트럭 운전일을 하고 있는 화덜 라힘씨는 아침 늦게까지 덤프트럭 두 대분의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쓰레기양이 믿기지 않는지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쓰레기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마드 아드난씨는 이 모습을 보고, “전쟁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쓰레기가 수거되어 간다”고 말했다. 전쟁이전에 이 지역에는 일주일에 서 너번 쓰레기차가 오곤 했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얼마 안되어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던 아드난씨는,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쓰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바그다드 북부 알 아다미야 지구 지자체장 하미드 칼리프씨는 공중위생을 관리하는게 이제는 중요한 전투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차 7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35대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더 많은 트럭을 가동시켜 쓰레기를 수거하고는 싶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월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3월과 4월 두달에 걸쳐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임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품이라도 훔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바그다드당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니자르 파크리씨는 쓰레기 수거와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몇가지 품목들(트럭이나 하적기, 연료등)의 리스트를 유니세프에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파크리씨는 126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도시에서 공중보건을 관리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파크리씨는 불안정한 치안상황또한 걱정했다. 약탈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데, 반면 연합군은 아무런 보호도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파크리씨의 말은 이리하다. “거리에서 차를 도난당하거나 총성이 들려도, 경찰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치안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도 없습니다.”

알 알위야 병원에 다시 돌아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리다 하이다르였다. 생후 3개월인 이 아이는 일주일전 지독한 설사를 앓아 병원에 오게 되었고, 그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듯 했으나, 며칠 뒤 다시 설사에 걸려 지금은 매우 위독한 상황에 처해있다.

하이다르의 아버지는 집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수도 공급 또한 중단되었으며, 결국엔 강물을 그냥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쟁 전에는 병에 넣어 파는 식수나마 싼 값에 사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병에 담긴 물도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물을 끓여 먹기 위해 필요한 가스도 부족한 형편이다. “전체적인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병원이 문을 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병원만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이다르씨는 말한다. 하이다르씨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이 다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면서 말한다. “얼마가 들더라도 앞으로는 병에 담긴 깨끗한 식수를 사먹일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고요.”

이 글은 UN IRIN의 5월 6일자 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라크전쟁에 사용된 미영 연합군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피해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1. 이 글에서 얘기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정의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고 하면 ‘평소에는 민간인이지만 잠재적으로 전투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상할 목적으로 고안된 무기’를 뜻한다. 무차별파괴무기(Weapons of Indiscriminate Destruction), 대량붕괴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 대재앙효과무기(Weapons of Catastrophic Effect)라고도 불리는 대량살상무기는 그 파괴력이 너무나 커서 상대방의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인 효용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 종류에는 크게 핵과 방사능무기(Nuclear and radiological weapons),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 화학무기(Chemical Weapons) 등이 있는데, 머리글자만을 따서 NBC 무기라고도 한다.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이 세 종류의 무기는 다행히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이라크가 (보유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생화학무기로 대응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연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핵무기, 생화학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어디서 날아온 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의해 그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다친 것은 '대량살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대량살상'이 되는 것일까?

또한,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무기들을 흔히 '최첨단 무기', '최첨단 정밀유도무기'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이 용어들은 미국과 영국이 사용한 무기들의 범 죄적, 반인도적 속성을 교묘하게 감추고, 사람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이들 무기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를 15m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현대과학기술의 총아'라는 등의 표현을 동원함으로써 마치 이 무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민간인들은 피해가면서) 군사적 목표물만을 공격하는 '정밀'무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부르는, 미영 연합군의 공습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최첨단무기'의 성능만을 강조하는 글들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감히 도전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저런 첨단무기로 무장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허구적인 '자주국방' 의식을 심어줄 뿐이다. 그리고, 그 무기로 인해 숨겨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보다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계기판을 조작하는 군인의 '스마트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잡게 하면서 집단적인 '전쟁 불감증'을 조장한다.

마지막으로 '반인도적 무기'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도 분명히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반인도적 무기'라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인도적' 무기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세상에 '인도적인' 무기라는 것이 존재하거나 하는 것일까? 물론 '비살상 무기'라고 알려진 무기들이 있기는 하다. 탄소섬유가 채워진 원통형 자탄 202개를 적재해 전선과 전력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흑연폭탄(CBU-94/B), 20억 와트 전력의 고출력 극초단파 전파를 발산해 반경 330m 안에 있는 군사시설을 비롯해 발전소, 은행, 기차, 전화 등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극초단파 빔폭탄(HPMs, 일명 e-폭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을 뿐 발전소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파괴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삶과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들 무기도 전혀 '인도적'이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아니더라도 최첨단 무기나 반인도적 무기라는 표현 대신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전개된 이번 이라크침공에서 미영 연합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클러스터 폭탄과 열화우라늄 무기가 얼마나 잔인한 무기이고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의 민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그리고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클러스터 폭탄 (Cluster Bomb)

클러스터 폭탄은 어떻게 삶을 위협하는가

흔히 짐속탄이라고 불리는 클러스터 폭탄은 강통 모양의 모폭탄(母爆彈) 내에 작은 음료수 캔 크기의 자폭탄(子爆彈)이 202개에서 700개까지 들어있어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도 한다. 작동원리는 시한 장치에 의해서 모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자폭탄은 폭발하면서 다시 약 300여개의 톱니모양의 강철파편을 주위에 흩뿌리는데 이 파편들이 사람들의 목과 팔다리를 절단시켜 죽음이나 치명적인 부상에 이르게 한다. 살상반경은 100미터 정도로 축구장 두 개 정도의 넓은 지역에 흩뿌려진다.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특성 때문에 애초부터 클러스터 폭탄은 민간인과 전투원들을 구별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살상반경 내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른이든 아이 이든, 민간인이든 전투원이든 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 폭탄은 그 자체의 인명살상력도 엄청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자폭탄 중 최소 5%에서 최대 30% 정도가 최초의 충격으로 터지지 않고 불발탄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연발 로켓시스템(MLRS)이 최대 12발의 클러스터 폭탄을 연달아 발사할 경우 내부에 들어있는 자폭탄의 총 개수는 7,728개이다. 2000년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M77 자폭탄의 신뢰는 84%이다. 이에 근거하면 MLRS 발사 클러스터 폭탄은 한번의 공격에서 1,236개의 불발탄을 양산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하나의 MLRS 포대는 4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차례 공격에서 발생하는 불발탄의 개수는 4,944개라는 계산이 나온다.³⁰⁾

이미 육지에서 발사하는 M77, M42, M46과 공중에서 투하되는 구형 ROCKEY(CBU99/CBU100), 신형 통합효과탄두(CBU87) 등의 클러스터 폭탄은 이라크, 쿠웨이트,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많은 불발탄들을 양산했다.³¹⁾

이 수많은 불발 클러스터탄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민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실상의 대인지뢰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³²⁾

클러스터 폭탄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들의 피해

그렇다면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했으며,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Richard Myers) 장군은 지난 4월 2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라크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클러스터 폭탄은 약 1,500 발이다. 그로 인해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모든 사용된 클러스터 폭탄과 목표물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로는 1,500 발 중에서 단 26 발만이 민간인 지역 1,500 피트 내에 떨어졌을 뿐이다. 즉, 이제까지 클러스터 폭탄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는 단 한건만 보고되었다.”³³⁾

30)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전세계 폭발물에 관한 개관 A Global Overview of Explosive Submunitions”, 1 May 2002

31) www.hrw.org/backgrounders/arms/

3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이라크: 클러스터 폭탄의 사용 - 민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Iraq: Use of cluster bombs - Civilians pay the price” 2 April 2003, AI Index: MDE 14/065/2003

33) AFP(Agence France-Presse), April 25, 2003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이 지상에서 다연발로켓시스템(MLRS)으로 발사한 클러스터 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이라크 바디카운트(www.iraqbodycount.net)>가 전쟁기간 나온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200명의 민간인들이 클러스터 폭탄으로 희생되었고, 다른 폭탄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공격까지 포함하면 민간인 희생자는 372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147명이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희생자의 약 절반이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 개의 모폭탄에 들어있는 200여개의 자폭탄들 중 평균 10개가 불발탄으로 남는다면, 미 국방부의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침공 기간동안 사용된 1,500 발의 클러스터 폭탄에서 15,000개의 아직 터지지 않은 불발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참고로 자폭탄 한 개로 6명의 민간인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미군만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영국 국방부도 지난 4월 24일 적어도 66발의 구형 BL-755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이 클러스터 폭탄은 1차 걸프전 때 395발, 코소보 전쟁 때 500발이 사용되었는데, 당시 불발탄의 비율이 16퍼센트 이상이었다고 보고된다. 클러스터 폭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가 단 한 명 뿐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미 합참의장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언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그다드 남쪽 힐라(Hilla)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4월 1일, 현장을 방문한 AFP 특파원은 피해 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클러스터 폭탄의 파편들을 목격했다. 현지 병원직원들과 목격자들은 약 48명의 민간인들이 클러스터 폭탄으로 희생됐다고 한다. 당시에 목격한 힐라의 참상을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의 로버트 피스크(Robert Fisk)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로이터와 AP통신 기자는 이라크 당국의 허가를 얻어 피해 마을로 들어가 여성들과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몸이 반으로 잘려진 아기들, 사지가 절단돼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고, 분명히 미군의 포격과 클러스터 폭탄으로 인한 희생자들이었다. 자신의 아기 시체의 일부분을 부여안고 카메라를 향해 '겁쟁이들, 겁쟁이들'이라고 부르짖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포함해 기자들이 촬영한 장면들은 너무나 끔찍해 텔레비전에 방영할 수 없을 정도여서 전체 21분 분량의 테잎 중 몇 분만을 남기고 편집을 해야 했다. 또한 힐라의 병원 바깥에는 꽃으로 장식된 옷이 입혀진 여인들의 시신을 포함해 두 트럭에 실린 시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³⁴⁾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지뢰행동(Landmine Action)'은 힐라에서 찍은 사진들에 터지지 않은 BLU97 클러스터 폭탄들이 잡혔다고 말했다. 힐라에서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브룩스 장군은 클러스터 폭탄의 사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목표물에 접근해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에 대해 고려를 한다...나는 (힐라에서의)특정한 공격과 폭발이 클러스터 폭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클러스터 폭탄은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구로 만든다. 또한, 피해는 공습이 중단되어도 멈추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직접적인 공습이 중단된 후에도 갓난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발탄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노란색의 음료수 캔처럼 생긴 폭탄을 장난감이나 구호식량인 줄 알

34) The Independent, April 03, 2003

고 만지다가 폭탄이 터져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군도 잘 알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서 불발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³⁵⁾

미국과 영국은 1997년의 오타와 지뢰금지 협약이 클러스터 폭탄을 특정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두고 무차별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클러스터 폭탄의 비인도적인 속성은 국제사회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전투원들과 섞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간인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클러스터 폭탄의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클러스터 폭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 상황

사고날짜	폭격날짜	장 소	희생자	비 고
3. 22	3. 22	바스라	50 명	희생자들 중 2살짜리 유아와 목이 날아간 8살짜리 어린이 포함.
3. 23	3. 23	나시리아 민간인지역	10 명	3~4발(폭탄이 분산되기 전)의 폭 탄이 떨어져 200명 이상이 부상.
3. 27-28	3. 28	나자프	26 명	
4. 1	4. 1	힐라의 나테르지 역	33 명	희생자들 중에는 골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살아남은 15세 소년의 아버지와 두 삼촌 포함
4. 2	4. 2	나자프의 카라마지역	40 명	
3. 20-4. 3	3. 20-4. 3	모하메디 아	41명	클러스터 폭탄으로 추정
4. 9-21	4. 9	바그다드 가잘리아	19명	B-52에서 클러스터 폭탄 투하
4. 10-17	미확인	나시리아 알 타디아 빈민가	3명	7살에서 14살의 소년들이 불발탄 을 줍다가 폭발해 사망
4. 11	미확인	바그다드	2명	아이들이 불발탄을 주워 놀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위가 열리고 장이 쏟아져 나옴
4. 11	4. 9	바그다드	1명	바그다드 중심부의 한 가정집 거 실에서 아이들이 가져온 불발탄이 터져 8개월된 아기가 사망
4. 12	4. 9	바그다드	2명	불발탄을 줍다가 떨어뜨리는 바람 에 7살과 9살된 어린이들 사망

35) "미국의 클러스터 폭탄은 이라크 도시에 죽음과 장애를 남기고 있다", AFP, 29 April 2003

사고날짜	폭격날짜	장 소	희생자	비 고
4. 7-12	미확인	바그다드 두라 지역	3명	불발탄이 터져 일가족 전원사망
4. 18	미확인	바그다드	1명	
4. 19	미확인	바그다드	3명	불발 M-42 클러스터 폭탄이 터져 2명의 아이는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병원에서 사망
4. 19	미확인	바그다드	3명	불발탄이 터져 길에서 놀던 아이 들 3명 사망하고 1명은 왼쪽 어깨 와 팔이 떨어져 나감

사고날짜	폭격날짜	장 소	희생자	비 고
4. 26	미확인	바그다드	2 명	불발탄이 터져 6살과 8살짜리 여 자아이 둘이 사망
4. 10-24	미확인	덱스, 칼라	29명	
4. 14-21	4. 9 이전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52명	지뢰와 클러스터 폭탄의 폭발로 대부분 아이들이 희생됨
4. 6-5. 3	4. 6 이전	카발라	35명	

* 출처 : 이라크 바디 카운트 www.iraqbodycount.net

3. 열화우라늄 무기(Depleted Uranium Weapons)

열화우라늄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가

열화우라늄(Depleted Uranium, DU)은 천연 우라늄이 농축된 후에 남겨진 부산물로서 무기제조나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다. 그것은 고체 형태에서는 가벼운 방사능 반응만을 일으킬 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경우 무기로서 매우 유용한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밀도가 납의 1.7배 정도로 아주 높아서 같은 부피의 납 발사체보다 절반정도 되는 크기의 우라늄 발사체로도 아주 작은 부위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적의 장갑차를 쉽게 뚫어 버릴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 둘째, 가연성이 매우 높다. 아주 순도높은 철 먼지와 같은 열화우라늄은 탱크의 측면 같은 단단한 물체를 타격하는 순간 곧바로 뚫고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 섭씨 약 6,000도의 고열로 타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 쉽게 구입과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⁶⁾ 그런데, 열화우라늄은 군사적으로 매우 유용한 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그 이유는 발사체가 장갑차를 타격하는 순간 발생하는 우라늄 산화먼지가 갖는 위험성 때문이다. 이 방사능 먼지는 폭발과 동시에 바람을 타

36) http://www.sonaliandjim.net/politics/DU/DU_paper.htm

고 수마일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쟁터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까지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도 비록 이 방사능먼지가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위험성이 오래 가지 않고, 한정된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며, 방사능보다는 화학물질 중독을 주로 일으킨다고 주장 하기는 했지만, 그 먼지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³⁷⁾

열화우라늄 무기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이 대전차용 무기로 개발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직경 120mm와 30mm의 기관총탄이 대표적인 열화우라늄탄으로 탄두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86mm, 무게는 292g이다. 이 탄두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약 5천~6천발의 120mm 탄환과 9만 4천발의 30mm 탄환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돼 이라크 전차 1,200 여대를 파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 이후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94년~95년 보스니아 전쟁과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 측의 장갑차와 전차, 심지어는 코소보 알바니아계 난민들에게까지도 약 4만 여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

열화우라늄의 유해성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91년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국과 영국, 캐나다 군인들 사이에 암과 백혈병, 저혈압, 기억상실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면서부터이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2세들한테서도 선천성 기형, 면역 결핍, 호르몬 이상, 감각기관 마비 등의 치명적인 장애가 나타났는데, 당시 미군은 참전군인 70만명 가운데 약 30만명이 이런 증세를 보여 미국 보훈처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군인만 해도 18만 3천명, 전체 참전군인의 26%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400명이 넘었다. 이들을 치료한 조지타운대 핵의학 교수인 아사프 두라코빅 박사는 “걸프전 참전군인들의 뼈와 신체조직에서 우라늄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³⁸⁾ 이 때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걸프전 증후군’이었고, 이 표현은 몇 년 후 ‘발칸 증후군’이라는 단어로 이어졌다.

물론, 열화우라늄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라크 민중들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열화우라늄 무기가 수많은 이라크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장애를 유발했음을 시사하는 보고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98년 12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걸프전에서 미영군에 의해 사용된 열화우라늄의 건강과 환경영향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Depleted Uranium used by U.S. and British forces in the 1991 Gulf War)’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차 걸프전 때 이라크 남부지방에서 열화우라늄에 노출된 적이 있는 군인들 중 각종 암에 걸린 19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 1,425명을 조사한 결과 91년에는 29명에 불과하던 암환자가 96년에는 327명으로 거의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1 참조). 또한 열화우라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조사대상 315명 중 91년에 발병한 사람은 3명인 반면 94년에는 76명으로 25배 증가했다(아래 표2 참조). 이는 전쟁터에서 직접 열화우라늄에 직접 노출된 전투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까지 열화우라늄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³⁹⁾

37)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1101447.stm>

38)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10일자

39) http://www.web-light.nl/VISIE/DUREPORT/mirror_dureport.html

<표1> 열화우라늄에 노출된 군인들의 암 발생 변화(1992-1997)

암의 종류	연 도							합 계
	92	93	94	95	96	97	98	
림프종	10	16	75	85	80	106	82	449
백혈병	10	28	45	53	65	70	40	311
폐암	4	6	39	40	41	40	40	210
뇌암	1	2	20	30	35	40	34	162
위암	2	6	13	15	10	10	10	66
고환암	-	1	5	10	12	15	15	58
골수암	2	3	5	10	10	12	15	57
췌장암	-	-	-	3	10	12	15	40
편도선	-	-	-	-	7	11	15	36
간암	-	-	-	5	-	11	13	36
합계	29	62	197	251	280	327	279	1,425

<표2>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지 않은 군인들의 암 발생 변화

암의 종류	연 도							합 계
	91	92	93	94	95	96	97	
폐암	2	6	7	15	11	23	14	78
위암	-	10	11	17	14	13	-	65
백혈병	1	4	7	11	7	12	6	48
림프종	-	2	8	11	9	8	6	44
간암	-	1	6	8	10	5	-	30
골수암	-	-	2	12	7	3	3	27
뇌암	-	-	-	2	4	7	10	23
합계	3	23	41	76	62	71	39	315

열화우라늄 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다. 매우 독성이 강한 방사능 무기다. 전쟁에 관한 모든 국제법은 잔인하고 무차별한 무기의 사용과 환경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열화우라늄 무기는 본래부터의 잔인함과 무제한적인 살상효과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1977년의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국제법에 의거해 금지해야 할 무차별 살상무기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열화우라늄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1,000~2,000 톤 정도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만 할 뿐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열화우라늄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화우라늄이 사용된 지역에 대한 정화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열화우라늄 무기로 인한 부작용은 단기간 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라크 인들이 열화우라늄의 후유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지는 지금으로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급한 과제는 이라크 전역에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오염된 지역의 정화와 무기잔해 제거 작업을 긴급히 시작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열화우라늄 무기의 연구, 제조, 실험, 운반, 군사적 이용을 국제법상으로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지난 7월 7일, 미국은 '이라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일 지속되는 이라크 내 게릴라식 무장공격과 사회기반시설의 붕괴, 전기와 수도 및 식량의 부족 등 이라크 전후 재건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와 신보수 주의자들의 강경노선이 미국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 9·11이후 반테러전쟁 속에서 미해게모니의 위기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을 시사한다. 특히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무능력'은 세계적 반전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패배하는 미국

지난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이후 석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민의 50%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근거가 거짓이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7월 6일, 뉴욕타임즈에는 부시행정부의 WMD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조지프 윌슨 前가봉 미대

사의 글이 실렸고, 며칠 후 백악관은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얼마 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방장관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입증할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시인했다.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했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거짓 정보에 기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근거였던 WMD의 실체는 결국 거짓이었음을, 미국은 이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만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승전으로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부시행정부에게 이는 종전직후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처한 곤란함은 정보조작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후세인의 육성테이프가 발견되면서 후세인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에 대한 현상금은 종전의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100배 이상 경증 뛰어올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현상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지만 후세인의 종적은 게릴라 무장봉기의 종적으로만 추적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세인의 생존 여부 자체라기보다는 후세인이 생존하기를 열망하는 대중 심리에 투영된 정치적 위협이다.

한편, 종전 후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의해 사망한 미군의 수는 무려 70명에 육박한다 (이는 공식 교전 당시 발생한 미군 측 공식 사망자 수 130여명에 비한다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미국의 군정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이 무장저항세력은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갈수록 사용되는 공격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송유관과 변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파되고 있으며, 이유없는 정전사태의 빈도도 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의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입장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에 부쳐져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석유산업 재가동 프로그램뿐이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은 올해에만 2백 30억달러(약 27조 6천억원)이 소모되고 이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매해 1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엄청난 비용모두를 석유를 팔아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가 석유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고작 연간 140-160억 달러정도이고 2010년까지 기존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해 동안 2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수출로 이라크 재건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라크석유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4월, 이미 미국무부는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전후이라크 석유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의 참가자는 극비에 붙여졌지

만 전(前) 이라크 석유장관인 파드힐 찰라비를 비롯, 반후세인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동시에 석유회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생산물분배 협정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도출, 이를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생산물분배협정(PSAs) 적용'이란 유정이 국유화된 산유국에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석유회사가 부담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정의 소유권은 그대로 산유국이 가진다. 이런 방식은 국가 통제가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비해 석유회사들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이라크 석유를 정부 독점사업에서 민영화로 전환하는 동시에 새 유정을 개발하는 데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순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생산물분배협정(PSAs)에 대한 OPEC과의 상충되는 입장이 문제인데, 세계2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가 산유량을 무한정 늘릴 경우 세계석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의 가격결정권은 무너지고 만다. 유가는 통제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또한 OPEC과의 첨예한 갈등을 예상하지 않고서라도 미군정은 이미 후세인 정권이 러시아와 중국과 맺은 3개월유 공급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걸프전 이후 이라크 석유사업개발권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문제로 남아있어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은 비화될 것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무리한 이라크 석유산업 장악 프로젝트 이외에는, 13년간 경제제재로 마비된 이라크의 경제재건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분명한 것은 이라크 경제제재를 통해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6·23 요르단세계경제포럼). 이는 중동 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이를 통해 중동과 북미를 연결하는 단일지역합의체가 구성된다는 계획이다. 이 장미빛 구상의 실현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여부에 달려있는데, "복구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라크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금융계의 이라크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우선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의 중심을 국영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기에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월가의 JP 모건, 시티그룹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석유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재건비용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내 주요 국영기업 100여개를 내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간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상권의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

이에 따라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내의 반감미정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분열적이어서 아직 단일한 정치적 요구와 전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 점령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핵심시설을 폭파시키는 게릴라식 무장봉기인데,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발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는 처음에는 이라크 중부에서 사담 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점령군을 쫓아내기 위한 귀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미저항조직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후세인의 수니파 후원세력이었으나 자금과 무기, 교통수단, 수신장치, 정보제공자를 갖춘 이라크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밀집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알제리 체첸 출신의 용병들을 합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이라크 내의 저항은 범이슬람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장공격과는 다른 흐름으로 이슬람의 다수 종파인 시아파는 정리 주중기도회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Najaf)와 카발라(Karbala)와 같은 사원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전 이후 망명했던 반체제 종교지도자들이 속속 귀향, 각각 과도 정부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존의 나락에 몰려있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은 종교적 감정과 혼합된 반미의식으로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전후 통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라크 종교·정치세력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그 결과로 1992년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내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을 친미세력으로 규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라크 민족주의의 실체와 그것의 근원인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국민의 60%가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존재와 나자프와 카발라와 같은 사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은 이라크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부 설립을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 회의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세력은 일체히 불참했고,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는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개입 없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수립'은 이라크 내 다양한 이슬람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정부 수립에서 미국을 배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국반대! 후세인반대!"를 기치로 가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아파는 미국 군정 주도의 이라크 새 헌법제정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이라크 내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헌법제정에 반대하는 율법명령(fatwa)발표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조기 총선시 이들의 집권을 염려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총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7월 7일, 갑자기 서둘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발표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과도통치위원회' 구상은 당초 미군정당국에 대한 자문역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기존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이슬람 종교세력을 적극적으로 순치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사정이 엿보이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후세인의 계보를 잇는 바아쓰당의 복권에 의존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년간의 경제제재에 이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경제재건프로그램은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는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배는 범아랍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적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봉착한 새로운 정치적 위험

이러한 전후 통치의 난관을 반영하듯, 미국 외교안보협의회(CFR) 이라크특별팀은 미국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 전후재건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는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명분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시당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을 침식한다. 또 단기 승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도 일부 초민족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파괴양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야만성을 집요하게 비판함으로써 미국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를 급진적으로 영유하는 것이 국제적 반전운동에 부여된 과제 중 하나다.